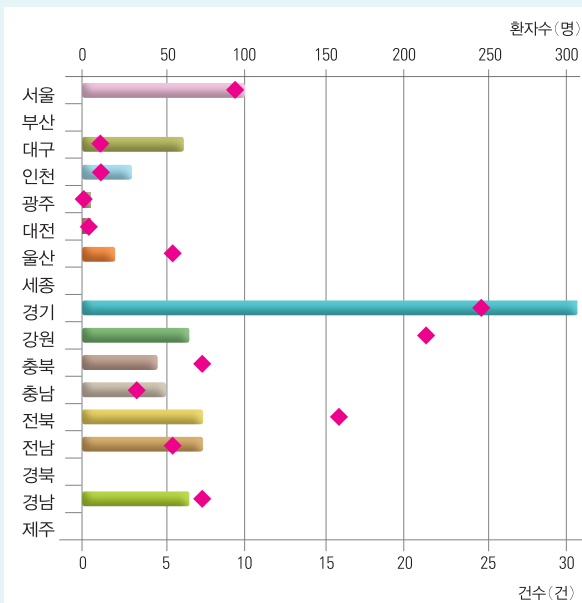


1월 겨울철 식중독 주의 정보 알림

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음

발생 지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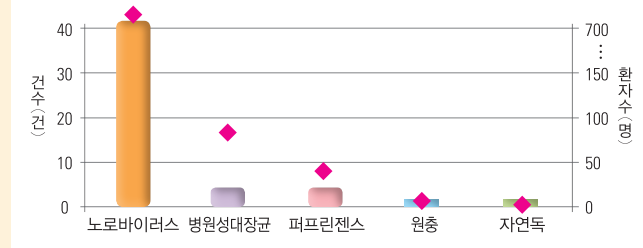
막대: 건수 ◆: 환자수



- 주로 경기(32건), 서울(10건), 전북·전남(7건)에서 발생이 많았음
- ※ 경기(용인6건), 서울(종로2건), 전북(전주4건), 전남(강진2건) 등의 지역은 특별히 주의 필요

원인균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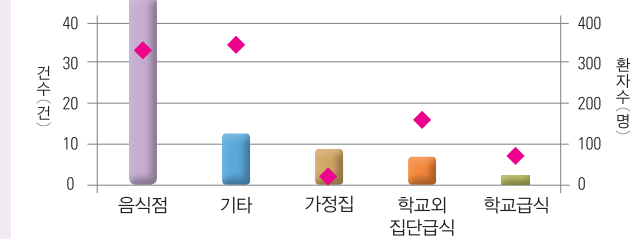
막대: 건수 ◆: 환자수



- 주요 발생원인균 중 노로바이러스(42건)으로 인한 발생이 많았음
- ※ 병원성대장균(4건), 퍼프린젠스(4건) 등

발생시설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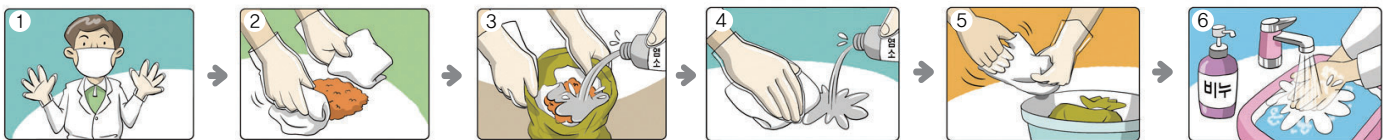
막대: 건수 ◆: 환자수



- 음식점(51건), 기타(12건), 가정집(8건)에서 발생이 많았음
- ※ 횡집·일식(17건), 야외활동 및 행사장소(4건) 등

[이 달의 주의사항]

노로바이러스 감염원 제거요령(토사물)



- 토사물 등 눈에 보이는 감염원을 맨손이나 대걸레로 처리하지 말고 소독액을 묻힌 기구들을 이용하여 제거한 다음 5,000mg/L 염소소독액을 이용하여 소독 실시
※ 사용한 걸레, 장갑 등은 쓰레기 봉투에 잘 밀봉하여 폐기하고, 감염원 주위 1m²는 집중적으로 청소와 소독 실시
- 청소방법
 - ① 일회용 장갑, 마스크, 가운이나 에이프론을 착용
 - ② 토사물은 일회용 천이나 종이 타올 등으로 외측에서 안쪽으로 향해 면을 접어가면서 닦아낸다.
 - ③ 사용한 일회용 천이나 종이 타올 등은 바로 비닐봉투에 넣고 처리 (이때 비닐봉투에 5,000ppm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스며들도록 넣고 소독)
 - ④ 구토물이 묻어있던 바닥과 그 주위를 5,000ppm 염소소독액으로 적신천이나 종이타올 등을 사용하여 닦든지 스며들도록 닦는다.
※ 염소소독액은 철 등의 금속을 부식시키므로, 닦아내고 10분 정도 지나면 물걸레질을 한다.
 - ⑤ 장갑을 벗어(외측을 안으로 함)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 후
 - ⑥ 손 세정
- 노로바이러스 카드뉴스, 각종 홍보물을 활용(식중독예방·홍보사이트 www.mfds.go.kr/fm) 하여 식중독예방 교육·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최근 5년간('12~'16) 발생한 식중독 현황을 분석한 자료

* 식중독예방, 컨설팅, 홍보 등에 식중독 예측지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(식약처 홈페이지)